北 7년전 잃어버린 어뢰에 꼬리밟혀

스크루 파편 등 천안함 침몰 결정적 물증 확보

합조단, 발표문에 '北 어뢰공격' 표현 넣을 듯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 중인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음을 말해줄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합조단이 물증을 확보하는 데는 7년 전 서해 연안에서 우리 군이 수거한 북한의 훈련용 어뢰가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서해 연안에서 북한의 훈련용 어뢰 1발을 수거해 보관하고 있었다.

천안함의 절단면을 비롯한 쌍끌이 어선 등을 동원해 해저에서 수거한 금속파편을 훈련용 어뢰 재질과 비교한 결과 같은 것이 발견됐으며, 천안함에서 검출한 화약성분도 이 어뢰의 추진 화약 성분과 같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것이다.

합조단은 어뢰의 추진화약 성분을 20일 조사결과 발표 때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7년 전 잃어버린 훈련용 어뢰 1발로 꼬리가 잡힌 셈이다.

일각에서는 어뢰 프로펠러 파편을 찾아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프로펠러로 추정되는 물체를 찾아내 분석 중이며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합조단은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결론에 도달한 만큼 '북한의 어뢰 공격'이란 표현을 발표문에 넣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외교안보부처 장관과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문 초안을 설명하고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당국은 조사 결과 발표 후 대북 군사대비태세 강화 일환으로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일정을 미측과 협의하고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철거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안 등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북풍'에 야권 단일화 효과 묻힐라

민주 수도권 '빅3' 지지율 반전 부심

'내각 총사퇴' 요구 접기로

민주당이 '북풍'(北風)의 파괴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수도권 '빅3'의 지지율 반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의 천안함 진상조사 발표결과에 따라 수도권내 야권 단일화 효과가 자칫 북풍에 묻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다른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북한의 소행이라는 발표가 나올 경우 공동협의체를 발족, 책임자 문책 등 국가안보 위기 사태에 대한 여권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정부가 결정적 물증 없이 북한 소행으로 몰고 갈 경우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북풍 차단을 시도한다는 복안이다.

정동영 공동선대위원장은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권이 선거운동 개시일에 맞춰 천안함 조사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선거를 북한의 김정일 정권 심판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거론되던 내각 총사퇴 카드는 접기로 하는 등 대응수위를 조절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야권 경기지사 단일후보인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연일 북한 소행설에 선을 그으며 포문을 여는데 대해 당 일부에서 불편해 하는 분위기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당 핵심인사는 "안보 프레임이 형성되면 우리로선 유리할 게 없는 게 사실"이라며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되 후보들이 이 문제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게 별 도움이 안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의 야권 후보 단일화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데 대해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고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적잖은 차로 앞서는 현 흐름이 자칫 한나라당 후보 대세론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적지 않다.

우상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야권 지지자들은 여론조사에 잘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정확도를 잃었다"며 "왜곡된 여론조사를 기정사실화해 표심을 왜곡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미-중 대립구도…천안함 외교 엇갈린 기류

한-미 찰떡 공조…한-중 갈등 조짐

中 태도가 '대북제재' 현실화 좌우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오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자료사진)과 전화통화를 갖고 천안함 사태 대응방향 등 한미동맹 전반에 대해 협의했다. /연합뉴스

천안함 대응을 둘러싸고 한반도 외교 지형에 심상찮은 전선이 그려지고 있다.

20일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 공식발표를 앞두고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 전폭적 지지의사를 표명한데 반해 중국은 조사결과에 의구심을 표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G2(주요 2개국)의 엇갈린 기류는 조사결과 발표 이후 천안함 대응을 둘러싼 본격적인 입장차로 발전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천안함 외교'는 중대한 변수에 직면한 형국이다.

일단 한·미의 공조 스탠스는 양국 정상이 조사결과 발표를 이틀 앞두고 18일 오전 9시부터 25분간에 걸쳐 장시간 전화통화를 가진데서 뚜렷이 확인됐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통화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의 대응과 국제조사단의 조사 활동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이번 조사결과 발표와 한국 정부의 대응움직임을 바라보는 중국측의 시선은 소극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이런 기류는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가 17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장 대사는 "북한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북측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 억측은 자제해야 한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면 누구의 소행인지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사의 이 같은 발언에 어느정도의 정치적 무게감이 실려있는 지는 미지수이지만 중국 외교의 특성상 중국 정부가 앞으로 취할 대응기조를 알리는 '전조'의 의미를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외교적 대응의 초점은 중국쪽으로 맞춰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정부의 기본 구상은 '미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의 지지'를 얻어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무대로 끌고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찰떡공조를 과시함으로써 '절반의 성공'을 거뒀지만 중국의 지지 여부는 또 다른 관문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현 단계에서 중국은 천안함 사건을 국제 안보무대로 끌고가려는 우리정부 구상의 현실화 여부를 좌우할 국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어떤 자세를 내보이느냐에 따라 안보리 무대에서 알맹이 있는 대북제재가 현실화될 지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정부 신변안전 당부

北 체류인원 철수 잇따라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경협사업 등으로 북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한 각별한 신변안전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북측 지역에 체류 중이던 남측 인력들이 철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최근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주 대북 사업자 등에게 신변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전화 등 여러 경로로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20일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북 제재 조치를 위한 사실상 사전정지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측과 공동으로 고려왕궁터인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에 나섰던 남측 발굴팀 11명이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이날 오후 모두 철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리더&피플
6.2 지방선거
우리지역 후보자 검색
이젠!! 휴대폰으로 하세요!!
휴대폰 3654+무선인터넷 키
SHOW NATE
후보자 등록문의 : 02-2677-7116

대만이 18일 자체 제작한 2대의 어뢰정을 시범 운항하고 있다 .대만 해군은 어뢰정이 중국 레이다 망을 피하는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만 어뢰정 시범 운항

태국 시위대, 상원 중재 협상 참여키로

태국 반정부 시위대(UDD· 일명 레드셔츠)가 18일 상원이 중재하는 협상에 참여키로 결정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상원은 지난 17일 추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시위대와 정부 측에 상원이 중재하는 협상을 제안했다.

UDD 지도자인 나타웃 사이쿠아는 "인명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원이 중재하는 협상에 참여키로 시위대 지도부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측은 아직까지 상원 중재 하의 협상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태국 보안당국이 지난 13일 오후부터 시위 장소인 라차프라송 거리 일대에 대해 봉쇄작전을 펼치면서 군경과 시위대가 잇따라 충돌, 최근 5일 동안에만 38명이 숨지고 270여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MEGABOX

M관	하녀 (18세) 최고급관
2관	구르몰 버서난 달처럼(15세)
3관	하녀 (18세)
4관	로빈후드(15세)
5관	하녀 (18세)
6관	시(15세)
7관	대한민국1%(12세)/베스트셀러(15세) 브라더스(15세)
8관	로빈후드(15세)
9관	아이언맨2 (12세)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럼면약국사거리 ♡예매1544-0600

향토사랑 영화사랑 콜롬버스시네마

1관	로빈후드(15세)
2관	대한민국1%(12세)/베스트셀러(15세)
3관	로빈후드(15세)
4관	로빈후드(15세)
5관	구르몰 버서난 달처럼(15세)
6관	하녀 (18세)/ 토이스토리.토이(전체)
7관	아이언맨2 (12세)
8관	시(15세)
9관	하녀 (18세)
10관	아이언맨2 (12세)

3D디지털 상영!
4/1(목)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1588-7941 상담원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cinus 색깔있는 영화산책 시너스

1관	아이언맨2 (12세)/ 하녀 (18세)
2관	브라더스 (15세)/ 로빈후드(15세)
3관	로빈후드(15세)
4관	시(15세)
5관	구르몰 버서난 달처럼(15세) 베스트셀러(15세)
6관	아이언맨2 (12세)
7관	하녀 (18세)

씨너스 전대 3D(4K) 상영!!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1544-0070
북구보건소 건너편 ☎511-1000

primus 영화보는 즐거움이 있는곳 제일극장

1관	로빈후드(15세)
2관	로빈후드(15세)
3관	아이언맨2 (12세)
4관	하녀 (18세)
5관	구르몰 버서난 달처럼(15세)
6관	대한민국1%(12세)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새로운 기원 • www.primuscinema.com/www.jeilcinema.co.kr •
중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